

어머니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적 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정서조절을 매개로 하여

Children's Aggressive/Prosocial Behaviors and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s Mediator

한양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전임강사 김지현

Child Studies and Education, Hanyang Cyber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 Jihyun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between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aggressive/prosocial behaviors. The participants were 1,187 4th, 5th, 6th grade children and their mothers from two elementary schools in Korea. The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Scale(Kim, 2006), the Emotional Regulation Scale(Lee, 1997), and a peer-nomination measure(Crick, 1995; Crick & Grotpeter, 1995) were used.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Pearson's productive correlation and regression using SPSS(Ver 12.0). Findings revealed that children's self-emotional regulation mediated the effects of mother's physical punishment on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s, while children's other-emotional regulation mediated the effect of mother's warm-encouragement, mediation-supervision, and inconsistency o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s. In conclusion,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mediates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on children's aggressive/prosocial behaviors.

주제어(Key Words) : 공격적 행동(aggressive behavior),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 어머니 양육행동(maternal parenting behavior), 정서조절(emotional regulation), 매개효과(mediating effect)

I. 서론

아동은 또래관계를 통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고 사회적 행동을 통제한다(Rubin, 1982). 또한 또래 관계를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각을 발달시키고 집단에 대한 소속감, 사회적 기술 및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킨다. 그러나 모든 아동이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적인 또래관계와 긍정적인 또래관계에 영향이 미치는 요인으로 공격성과 친사회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공격성은 타인에게 신체적인 해를 입히는 의도적 행동 뿐 아니라 집단에서 배척 또는 소외시키거나 소문내기 같은 행위를 통해서 사회적 지위에 손상을 주는 행동을 의미한다. 친사회성은 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해 타인을 돕거나 도우려는 행동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Coie & Dodge, 1998; Crick, 1995; Eisenberg & Fabes, 1998). 이러한 특성은 또래 간 지위에도 영향을 미쳐 공격성이 높은 아동은 거부아로, 친사회성이 높은 아동은 인기아로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김윤경, 이옥경, 2001; Coie & Dodge, 1998; Eisenberg & Fabes, 1998).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은 여러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격성 및 친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아동의 정서조절과 어머니 양육행동을 들 수 있다(Barker, Cote, Nagin, Zoccolillo & Tremblay, 2008; Eisenberg, et al., 1999). 어머니 양육행동의 경우 이는 아동이 처음 접하는 사회 환경이 가정이고 어린 시절을 대부분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이다. 부모 양육과 관련된 변인들과 아동의 공격성 간에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의 공격성 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훈육방법이 영향을 미치며(Travillion & Snyder, 1993; Widom, 1989), 부적절한 양육이 아동의 공격성을 예언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보고하고 있다(Farrington, 1989). 특히, 비밀관적이고 거친 신체적인 훈육, 부모의 관리와 감독 소홀, 그리고 부적절한 부모 관여가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Crick, 1997; Crick & Dodge, 1994; Travillion & Snyder, 1993). 또한 양육행동은 아동의 친사회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부모가 온정적, 협력적이며, 자녀와 상호작용하면서 긍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하고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할수록, 아동은 사회적, 사교적으로 행동하고 위축되거나 공격적이지 않았다(박주희, 이은혜, 2001, 손승희, 이은혜, 2004; Clark & Ladd, 2000).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도 공격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몹시 화가 났을 때 대인 관계에서 적절한 판단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처럼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은 공격적인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Dodge, 1991). 정서 조절이란 내적 감정 상태 및 정서와 관련된 생리학적 과정의 발생, 강도, 지속기간을

조정하는 과정이며(Thompson, 1994), 정서 조절은 필요할 경우 반응을 지연하는 능력 뿐 아니라, 정서 경험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김지현, 박경자, 2006; Cole, Michel, & Teti, 1994). Calkins(1994)는 정서 조절이 정서적 각성을 조정하는데 사용되는 과정과 책략으로 이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정서 조절을 통해 효과적인 대인관계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정서 조절과 공격성에 관한 연구는 정서가 사회적 행동과 관계가 있다는 가정 하에(Campos, Campos, & Barrett, 1989; Thompson, 1994) 정서와 사회적 유능성, 문제 행동 및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이지희, 문혁준, 2008; Eisenberg, et al., 1997).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비행과 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 조절 능력과 공격성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Eisenberg와 Fabes(1996)는 학령전기 아동의 정서표현 통제능력이 기질 중 정서적 강도의 차원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아동의 기질 중 주의력이나 통제능력이 낮고 정서의 강도가 높은 아동은 분노나 좌절을 공격적인 행동이나 감정 발산과 같이 겉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다(Fabes & Eisenberg, 1992). 아동의 정서 조절과 행동 문제를 살펴 본 한유진(2004)의 연구도 정서 조절 능력이 과잉 행동 및 공격 행동과 같은 외현적 행동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아동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정서적 경험을 하게 되며 이러한 정서를 조절해야 할 상황에서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사회적 준거와 목적에 맞게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노서연, 2003). 그러므로 아동이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발달시키는 것은 아동의 사회적 행동의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이지희, 문혁준, 2008).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친사회성을 포함한 또래 유능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또래 유능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 하고, 긍정적 감정을 많이 보이고 또래와 잘 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지희, 문혁준, 2008; 임연진, 2002; Hubbar & Coie, 1994).

어머니 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조절과도 관계가 있는데 Kopp(1982)는 아동이 유능한 정서조절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아동의 사회화과정에서 주요 대상인 부모와의 긍정적 상호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어머니 양육행동과 정서조절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어머니가 합리적인 지도와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할수록 문제 중심적 대처 및 지지추구의 정서 조절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고(임희수, 2000),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 및 정서조절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Carson & Parke, 1996; Eisenberg, et al., 1999).

이와 같이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과 어머니 양육행동, 그리고 공격성 및 친사회성과 아동의 정서조절을 다룬 연구들은 있으나 양육행동, 정서조절과 공격성 및 친사회성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위의 변인들을 함께 살펴 보았더라도 공격성 및 친사회성과의 관계 또는 공격성 및 친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다(박지숙, 임승현, 박성연, 2009; 이지희, 문혁준, 2008; 임연진, 2002).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아동의 정서조절의 매개적 역할을 검증하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실제로 어떠한 매커니즘을 통하여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공격성 및 친사회성이 안정적인 특성으로 나타나므로(Coie & Dodge, 1998; Tremblay, 1994), 이 시기 아동의 발달 특성에 비추어 변인들의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이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기초로 하여 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공격성 및 친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어머니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검증해 봄으로써, 공격성 및 친사회성 발달 과정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돕고 또래관계에 문제를 가진 아동을 중재하는 예방적 차원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아동의 정서조절이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어머니 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조절을 통해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신도시의 2개 초등학교를 임의 선정하여 4, 5, 6학년 아동 총 1,187명(남아 590명, 여아 597명: 4학년 318명, 5학년 532명, 6학년 337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 아동의 성별 구성은 남아 49.7%, 여아 50.3%로 여아가 더 많았고, 연령별 구성은 4학년이 26.8%, 5학년이 44.8%, 6학년이 28.4%로 5학년이 가장 많았다.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30대가 26.8%, 40대가 69.5%였고 어머니의 경우 30대가 55.5%, 40대가 42.7%였다. 부모의 학력에서 아버지는 주로 고졸(43.9%)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졸(29.8%)이었다. 어머니도 고졸(64.2%)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졸(15.8%)이었다. 가계의 월수입은 200만원대(34.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0만원대(22.9%)였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지현(2006)이 예비조사를 거쳐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선정된 문항은 온정·수용(8문항), 비밀관적 훈육(6문항), 신체적 체벌(5문항), 관리·감독(5문항)에 대한 24문항이다.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위 영역 중 온정·수용과 관리·감독은 양육행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포함하며, 비밀관적 훈육과 신체적 체벌은 양육행동의 부정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관리·감독의 1번 문항과 비밀관적 훈육, 신체적 체벌 문항은 역점수하여 사용하였고, 어머니들은 각 문항에 나타난 양육행동을 집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1점)'에서 '자주 사용한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각 하위 차원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온정·수용이 .81, 비밀관적 훈육이 .77, 신체적 체벌이 .71, 관리·감독이 .71이었다.

2) 아동의 정서조절

정서 조절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는 이병래(1997)가 제작한 정서 지능 척도의 4개 하위영역 중 자기 정서 조절과 타인 정서 조절의 2개 하위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병래(1997)는 자기정서조절과 타인정서조절을 다음과 같이 정의내렸다. 자기정서조절은 인식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았고, 타인 정서조절은 대인관계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한 타인의 감정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내렸다.

자기 정서 조절 영역은 8문항, 타인 정서 조절 영역은 9문

2) 이 도구는 취학전 유아를 대상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본 연구 대상인 초등학생에게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초등학생 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문항이 초등학생에게 적합한지를 의뢰하여 수정하였다(김지현, 2006 참고).

항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이 되며 자기 정서 조절 영역에는 '자기 순서가 될 까지 참고 기다린다', 타인 정서 조절 영역에는 '부모님 혹은 친구가 화가 나 있을 때 자신의 행동을 조심할 줄 안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아동의 어머니는 자녀가 각 문항에 나타난 특성을 보이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각 하위 차원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는 자기 조절이 .70, 타인 조절이 .82였다.

3)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을 측정하기 위해 토래 지명 도구(Crick, 1995; Crick & Grotpeter, 1995)를 본 연구에 맞게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공격성³⁾에 관한 열네 문항(예, 다른 친구들을 때리고, 차고, 주먹질 하는 친구)과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네 문항(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친구)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 대상 아동은 각 문항의 설명에 해당하는 반 친구를 성에 상관없이 세 명까지 지명하였다. 공격성 및 친사회성 점수는 아동이 또래로부터 지명 받는 횟수를 합산하여 각 문항에 대해 학급별로 표준점수(Z점수)를 구한 뒤, 아동 개인별로 공격성 및 친사회성 문항의 표준화된 점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격성 문항의 Cronbach α 계수는 .95, 친사회성 문항의 Cronbach α 계수는 .86이었다.

3. 연구 절차

본 조사는 서울과 경기도 신도시에 위치한 2개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1,187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본 연구자와 사전에 훈련된 아동학을 전공한 대학생 2명이 대상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1,350명을 대상으로 토래지명검사를 실시하였다. 어머니용 질문지(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조절)는 토래지명검사가 끝난 직후 아동들에게 배포하였고 봉투에는 어머니용 질문지와 함께 질문지에 대한 설명, 주의사항, 비밀 보장에 대한 것과 협조를 부탁하는 공문을 동봉하였다. 답임교사에게는 아동들이 어머니용 질문지를 갖고 오는 것을 상기할 수 있도록 질문지 수거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였다. 어머니용 질문지 수거를 위해 본 연구자가 토래지명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1주일 후 각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회수된 어머니용 질문지를 수거하였다.

3) 공격성에 관한 문항의 경우 외현적 공격성에 관한 6문항,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문항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⁴⁾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1, 2와 관련하여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조절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의 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일련의 절차에 의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측정 변인들 간의 일반적 경향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가능한 점수 범위 및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어머니 양육행동 하위 영역의 평균 점수는 관리·감독이 18.2점, 온정·수용이 25.6점, 신체적 체벌이 8.6점, 비밀관적 훈육이 10.1점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의 경우 자기정서조절의 평균 점수가 21.5점, 타인정서조절의 평균 점수가 29.2점이었다. 공격성 및 친사회성의 경우 토래 지명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모든 분석에는 Z점수가 사용되었지만 <표 1>에서는 이해를 돕고자 원점수를 제시하였다. 아동의 공격성의 경우 평균이 17.8점, 친사회성의 경우 7.8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조절, 공격성 및 친사회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2>과

<표 1> 측정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N = 1,187)			
변인	하위영역	가능점수범위	M(SD)
어머니 양육행동	관리·감독	5~20	18.2(2.1)
	온정·수용	8~32	25.6(3.2)
	신체적 체벌	5~20	8.6(2.2)
비밀관적 훈육		6~24	10.1(2.6)
정서조절	자기조절능력	8~43	21.5(3.3)
	타인조절능력	9~36	29.2(3.8)
공격성		(0-14)×학생수	17.8(26.0)
친사회성		(0-4)×학생수	7.8(10.5)

4) 산포도 및 잔차를 통해 표준편차가 3이상인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2〉 측정 변인들간의 상관 관계

(N = 1,187)

	(1)	(2)	(3)	(4)	(5)	(6)	(7)	(8)
(1) 관리감독	1							
(2) 온정수용	.26***	1						
(3) 신체적체벌	-.17***	-.30***	1					
(4) 비일관적 훈육	-.40***	.22***	.16***	1				
(5) 자기정서조절	.14***	.27***	-.22***	-.06	1			
(6) 타인정서조절	.27***	.41***	-.24***	-.29***	.34***	1		
(7) 공격성	-.01	-.02	.07*	-.04	-.19***	-.03	1	
(8) 친사회성	.09**	.08**	-.11***	-.07*	.07*	.17***	.04	1

* $p < .05$, ** $p < .01$, *** $p < .001$.

같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 양육행동과 공격성 및 친사회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위 영역 중 신체적 체벌과 공격성이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 = .07, p < .05$). 어머니 양육행동과 친사회성의 관계에서는 관리·감독($r = .09, p < .01$), 온정·수용($r = .08, p < .01$)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신체적 체벌($r = -.11, p < .001$), 비일관적 훈육($r = -.07, p < .05$)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어머니가 신체적 체벌을 많이 보일수록 아동의 공격적 행동이 증가하며,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관리감독을 잘 하며 신체적 체벌 수준이 낮고 비일관적 훈육을 하지 않을 때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어머니 양육행동과 정서조절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 양육행동 하위 영역의 관리·감독($r = .14, p < .001$), 온정·수용($r = .27, p < .001$)은 정서조절의 하위 영역 중 자기정서조절과 정적상관을 나타냈고, 신체적 체벌은 자기정서조절과 부적상관($r = -.22, p < .001$)을 나타냈다. 어머니 양육행동과 정서조절 하위 영역 중 타인정서조절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관리·감독($r = .27, p < .001$), 온정·수용($r = .41, p < .001$)은 타인정서조절과 정적상관을, 신체적 체벌($r = -.24, p < .001$), 비일관적 훈육($r = -.29, p < .001$)은 타인정서조절과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자녀에 대해 관리 감독을 잘 하는 경우 자녀는 자기정서조절 및 타인정서조절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가 신체적 체벌을 많이 하는 경우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변화시키지 못하고, 인식된 타인의 정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으며, 부모가 비일관적 훈육을 많이 보일 경우 인식된 타인의 정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격성 및 친사회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서조절 하위 영역 중 자기정서조절은 공격성과 부적

상관을($r = -.19, p < .001$), 자기정서조절($r = .07, p < .05$)과 타인정서조절($r = .17, p < .001$)은 친사회성과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아동의 인식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변화시킬 수 없으면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고, 반면에 인식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고, 인식한 타인의 정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으면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에 따라 어머니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신체적 체벌은 공격성($\beta = .08, p < .05$)과 친사회성($\beta = -.08, p < .01$)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신체적 체벌을 많이 하면 아동은 공격성을 많이 보이고 친사회적 행동을 적게 보이는

〈표 3〉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회귀분석

(N = 1,187)

어머니 양육행동	사회적 행동	공격성	친사회성
		β	β
온정·수용		-.02	.05
관리·감독		-.01	.04
신체적 체벌		.08*	-.08**
비일관적 훈육		-.06	-.03
R^2		.01	.02
F		2.54*	5.59***

* $p < .05$, ** $p < .01$, *** $p < .001$.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 양육행동 중 신체적 체벌은 아동의 공격성 변량의 1%, 친사회성 변량의 2%를 설명하였다.

3. 아동의 정서조절이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에 따라 아동의 정서조절이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4>과 같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정서조절 중 자기정서조절은 공격성($\beta = -.20, p < .001$)을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타인정서조절은 친사회성($\beta = .16, p < .001$)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이는 아동이 인식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으면 공격적 행동을 덜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아동이 인식한 타인의 감정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으면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정서조절 중 자기정서조절은 공격성 변량의 4%, 타인정서조절은 친사회성 변량의 3%를 설명하였다.

<표 4> 공격성 및 친사회성에 대한 아동의 정서조절에 대한 회귀분석

(N = 1,187)

정서조절 \ 사회적 행동	공격성	친사회성
	β	β
자기정서조절	-.20***	.02
타인정서조절	.04	.16***
R^2	.04	.03
F	23.12***	17.64***

*** $p < .001$.

4. 어머니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아동의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회귀분석을 통해 변인들 간의 매개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그리고 종속변인간의 상호상관이 유의해야 한다는 Baron과 Kenny(1986)의 기본 전제가 충족되어야하므로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어머니 양육행동 중 신체적 체벌을 독립변인, 아동의 정서조절 중 자기정서조절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는 어머니 양육행동이 공격성에 미치는 과정에 있어 아동의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회귀분석 결과, 어머니 양육행동 중 신체적 체벌은 자기정서조절을 통제된 상태에서 아동의 공격성을 예측하지 못했다. 반면, 신체적 체벌을 통제된 상태에서 아동의 정서조절은 여전히 공격성을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양육행동과 공격성과의 관계는 아동의 자기정서조절 영역에

<표 5>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아동의 정서조절을 검증하는 회귀분석표

(N = 1,187)

종속변인/예언변인	ΔR^2	β	df
공격성/			
1단계: 자기정서조절	.04***	-.18***	1185
2단계: 신체적 체벌	.00	.04	1184
1단계: 신체적 체벌	.01*		
2단계: 자기정서조절	.03***		

* $p < .05$, *** $p < .001$.

의해 매개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 양육행동과 친사회성에 미치는 과정에 있어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종속변인, 독립변인과 매개변인간의 상호상관이 유의하게 나온 어머니 양육행동 하위 영역 중 온정·수용, 관리·감독, 비일관적 훈육, 신체적 체벌을 독립변인으로 친사회성을 종속변인으로, 정서조절 영역 중 타인정서조절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온정·수용, 관리·감독, 신체적 체벌을 독립변인으로 친사회성을 종속변인으로, 정서조절 영역 중 자기정서조절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표 6>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성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아동의 정서조절을 검증하는 회귀분석표

(N = 1,187)

종속변인/예언변인	ΔR^2	β	df
친사회성/			
1단계: 타인정서조절	.03***	.07**	1185
2단계: 온정·수용	.00	.02	1184
1단계: 온정·수용	.01**		
2단계: 타인정서조절	.02**		
친사회성/			
1단계: 타인정서조절	.03***	.16***	1185
2단계: 관리·감독	.00	.05	1184
1단계: 관리·감독	.01**		
2단계: 타인정서조절	.02***		
친사회성/			
1단계: 타인정서조절	.03***	.06***	1185
2단계: 비일관적훈육	.00	-.02	1184
1단계: 비일관적훈육	.00*		
2단계: 타인정서조절	.03***		

* $p < .05$, ** $p < .01$, *** $p < .001$.

하였다. <표 6>은 어머니 양육행동이 친사회성에 미치는 과정에 있어 아동의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어머니 양육행동 중 온정·수용, 관리·감독, 비밀관적 훈육, 신체적 체벌과 아동의 친사회성의 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조절 중 타인정서조절영역에 의해 매개되었는지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온정·수용, 관리·감독, 비밀관적 훈육은 아동의 타인정서조절영역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동의 친사회성을 예측하지 못했다. 반면, 어머니의 온정·수용, 관리·감독, 비밀관적 훈육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동의 타인조절영역은 여전히 아동의 친사회성을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온정·수용, 관리·감독, 비밀관적 훈육과 아동의 친사회성의 관계는 아동의 타인정서조절영역에 의해 매개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편 어머니 양육행동 중 신체적 체벌과 친사회성과의 관계에서 타인정서조절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어머니 양육행동 중 온정·수용, 관리·감독, 신체적 체벌과 친사회성간의 관계에서 자기정서조절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과 어머니 양육행동과의 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조절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 양육행동 중 신체적 체벌은 아동의 자기정서조절을 통해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 양육행동 중 온정·수용, 관리·감독, 비밀관적 훈육은 아동의 타인정서조절을 통해 아동의 친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들을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 양육행동 중 신체적 체벌은 공격성과 친사회성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신체적 체벌을 많이 할수록 아동의 공격성은 증가하고 친사회성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머니의 부적절한 양육방식이 아동의 공격성을 예언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하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Barker et al., 2008; Farrington, 1989). 선행 연구에 따르면 비밀관적이고 거친 신체적 훈육이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Crick, 1997; Crick & Dodge, 1994).

일반적으로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성의 관계를 살펴

본 선행 연구들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친사회성을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다(Clark & Ladd, 2000; Rubin, Burgess, & Hastings, 2002).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친사회성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많지 않지만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친사회성의 관계를 살펴본 도현심, 김민정, 박보경과 황영은(2005)의 연구에서 아동의 친사회성에 신체적 체벌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어머니 양육행동 중 신체적 체벌이 아동의 친사회성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관리·감독, 온정·수용, 비밀관적 훈육은 친사회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적 체벌만이 친사회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양육행동과 친사회성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양육행동의 하위 요인이 모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회귀 분석에서는 체벌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설명력이 유의하기는 하였지만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연구 대상이 초등학교 고학년이기 때문에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변인이 유아기 및 초등학교 저학년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즉, 이 시기는 부모의 영향보다는 또래의 영향이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행동의 영향력이 적게 나왔을 수 있다. 또한 어머니 양육행동을 질문지로 측정했는데 질문지로 측정한 내용에 사회적 바람직성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자녀 상호작용의 관찰 등과 같은 보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공격성 및 친사회성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의 정서조절이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기정서조절은 공격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타인정서조절은 친사회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즉, 자신의 감정을 절절하게 처리하고 변화시킬 줄 아는 아동은 공격적 행동을 덜 보이고, 타인의 정서를 잘 파악해서 위로할 줄 아는 아동은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서조절을 잘 하는 아동이 공격적 행동을 적게 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지현, 박경자, 2006; 박지숙 외, 2009; 이지희, 문혁준, 2008; Hubbard & Coie, 1994). 김지현과 박경자의 연구에 따르면 정서조절이 공격성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박지숙 외(2009)의 연구에서도 정서조절 능력이 공격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정서조절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을 포함한 또래 유능성을 살펴본 이지희와 문혁준(2008)의 연구에서는 자기정서조절과 타인정서조절이 모두 아동의 또래 유능성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조절 능력이 높은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스스로 효율적으로 진정시킬 능력이 있으므로, 공격적인 행동이나 문제행동을 표출할 가능성이 낮게 되어서(Caspi & Moffitt, 1993), 또래관계에서 더욱 친사회적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아동은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지희, 문혁준, 2008).

셋째, 어머니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아동의 정서조절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 양육행동 중 신체적 체벌과 공격성과의 관계는 자기정서조절에 의해 매개되었고, 어머니 양육행동 중 온정·수용, 관리·감독, 비밀관적 훈육과 친사회성과의 관계는 타인정서조절에 의해 매개되었다. 즉, 신체적 체벌을 많이 보이는 어머니의 아동은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이러한 측면이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주었고,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이며 관리 감독을 잘 하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고 비밀관적인 훈육을 적게 보이면 자녀는 타인정서조절을 잘 하게 되고 이러한 측면이 아동의 친사회성에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격성 및 친사회성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살펴본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지현, 박경자, 2006; 이지희, 문혁준, 2008; 한유진, 2004; Dodge, 1991; Eisenberg, et al., 1997). 즉,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면 정서조절을 잘 하고 어머니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면 정서조절을 잘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정서조절과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정서조절을 잘 하지 못하면 공격적 행동을 많이 보이고 친사회적 행동을 적게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과 어머니 양육행동과의 관계가 아동의 정서조절에 의해 매개된다는 본 연구결과는 부분적인 관계가 있는 변인들 간의 통합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어머니 양육행동이 어떻게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에 기여하게 되는지에 대한 개념적인 모델을 보다 구체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을 연결시키는 정서조절의 하위 차원 중 타인정서조절은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어머니 양육행동과 친사회성을 연결시키는 정서조절의 하위 차원 중 자기정서조절 역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에 대한 설명력이 적게 나타난 연구문제 1, 2의 결과와 함께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강력한 설명력을 지닌 매개변인을 충분히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임의 선정된 초등학교에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때 유의하여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어머니의 자기 보고에 의해 측정하였고 아동의 학교를 통해 어머니용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기 때문에 어머니 보고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서조절 질문지의 경우 원 도구는 교사용으로 개발이 되었지만 예비조사를 통해 어머니가 평정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측면이 본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어머니 양육행동의 경우 아동 보고를 통해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을 측정하거나 관찰 및 면접 등의 다른 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과의 관계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으며, 정서조절의 경우도 교사 평정 혹은 다른 측정 방법에 의해 그 관계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의 설명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개인 내적·외적 변인들을 포함하여 공격성 및 친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머니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을 통하여 공격성 및 친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가족과 또래를 연계시키는 잠재적 과정의 본질을 좀 더 이해하는데 기여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김윤경, 이옥경(2001).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과 행동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2), 65-82.
- 김지현(2006).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현, 박경자(2006).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아동학회지**, 27(3), 149-168.
- 노서연(2003). 어머니 부모역할 만족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도현심, 김민정, 박보경, 황영은(2005).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85-195.

- 박주희, 이은혜(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아동학회지**, 22(4), 1-15.
- 박지숙, 임승현, 박성연(2009). 아동의 성, 기질,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0(3), 85-98.
- 손승희, 이은혜(2004). 아동의 또래유능성과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4), 167-177.
- 이병래(1997). 부모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희, 문혁준(2008). 아동의 정서성, 정서조절 능력 및 어머니 양육행동이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4), 1-14.
- 임연진(2002). 어머니 양육행동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 113-124.
- 임희수(2000).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유진(2004).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 및 정서조절 능력과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42, 66-78.
- Barker, D., Cote, S., Nagin, D. S., Zoccolillo, M., & Tremblay, R. E.(2008). Controlling Parenting and physical aggression during elementary school. *Child Development*, 79(2), 411-425.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Calkins, S. D.(1994). Origin and outcom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In N. A. Fox(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pp. 53-72).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vol.59, nos. 2-3, serial no.24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mpos, J. J., Campos, R. G., & Barrett, K. C.(1989). Emergent themes in the study of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 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94-402.
- Carson, L., & Parke, R. D.(1996). Reciprocal negative affect in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children's peer competency. *Child Development*, 67, 2217-2226.
- Caspi, A., & Moffitt, T. E.(1993). When do individual differences matter? A paradoxical theory of personality coherence. *Psychological Inquiry*, 4, 247-271.
- Clark, K. E., & Ladd, G. W.(2000). Connectedness and autonomy support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Links to children's socioemotional orientation and peer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36(4), 485-498.
- Coie, J. D., & Dodge, K. A.(1998).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D. Eisenberg(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5th Ed.,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779-862). NY: Wiley.
- Cole, P. M., Michel, M., & Teti, L. O' Donnell. (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A clinical perspective. In N. A. Fox(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pp. 53-72).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vol.59, nos. 2-3, serial no.24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rick, N. R.(1995). Relational aggression: The role of intent attributions, feelings of distress, and provocation typ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313-322.
- Crick, N. R.(1997). Engagement in gender normative versus nonnormative forms of aggression: Links to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3, 610-617.
- Crick, N. R., & Dodge, K. A.(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 74-101.
- Crick, N. R., & Grotpeter, J. K.(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Dodge, K. A.(1991).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D. J. Pepler & K. H. Rubin(Eds.), *The development and*

-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pp. 201-218). Hillsdale, NJ: Erlbaum.
- Eisenberg, N., & Fabes, R. A.(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2227-2247.
- Eisenberg, N., & Fabes, R. A.(1998). Prosocial development. In D. Eisenberg(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5th Ed.,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701-778). NY: Wiley.
-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A., Guthrie, I. K., Murphy, B. C., & Reiser, M.(1999). Parental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Longitudinal relations to quality of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0, 513-534.
- Eisenberg, N., Guthrie, I. K., Fabes, R. A., Reiser, M., Murphy, B. C., Holgren, R., et al.(1997).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resiliency and competent social functioning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68, 295-311.
- Fabes, R. A., & Eisenberg, N.(1992). Young children's coping with interpersonal anger. *Child Development*, 63, 116-128.
- Farrington, D. P.(1989). Early predictors of adolescent aggression and adult violence. *Violence & Victims*, 4, 79-100.
- Hubbard, J. A., & Coie, J. D.(1994). Emotional correlates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Merrill-Palmer quarterly*, 40, 1-20.
- Kopp, C. B.(1982).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s: A developmental reviews.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43-354.
- Rubin, K. H.(1982). Social and social cognitiv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young isolate, normal and sociable children. In K. H. Rubin & H. S. Ross(Eds.), *Peer relationships and social skills in childhood*(pp. 353-374). New York: Springer-Verlag.
- Rubin, K. H., Burgess, K. B., & Hastings, P. D.(2002). Stability and social-behavioral consequences of toddlers' inhibited temperament and parenting. *Child Development*, 73, 483-495.
- Thompson, R. A.(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In Fox, N.(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pp. 25-52).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 Travillion, K., & Snyder, J.(1993). The role of maternal discipline and involvement in peer rejection and neglec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4, 37-57.
- Tremblay, R.(1994). Predicting early onset of male antisocial behavior from preschool behavio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1, 732-739.
- Widom, C. S.(1989). Does violence beget violence?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106, 3-28.

접 수 일 : 2009년 9월 10일

심사시작일 : 2009년 10월 8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1월 19일